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15년 전에 해인사에 인접한, 고령 장기리 암각화를 처음 봤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이제는 매년 휴가를 얻으면 알타이 암각화를 순례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암각화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는 그것이 오히려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편집자주〉

기도하는 밤

온
하늘 이어라
깊은 하늘이어라

하늘이 온통 내려 앉은
신들의 밤이어라

아...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한 백성의 눈물도
빠짐없이 담아 바친
무릎 끓는 밤이어라

중생의 어둠을 다 걷어내는
신(新) 새벽이어라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손가락 숫자가 다섯 개가 아닌, 특별한 사람이다. 손가락을 유난히 강조한 것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하늘을 쳐다보고 손에는 북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 고고학자 따쉬바예바 교수는 '버섯모양 인간'이라고 불렀다. 형태로 봐서는 버섯 모양이다. 하지만 이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속 뜻을 생각하면,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어울릴 듯하다. 머리위의 버섯 모양은, 모자나 어떤 장식이 아니라, '깊은 밤하늘'을 표현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나 깊은 밤이었던지, 어둠이 양쪽으로 흘러내리는 느낌마저 든다. 바위표면이 벗겨져서 생긴, 황토색은, 마치 멀리서 동이 트고 새벽이 오는 모습 같기도 하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으니, 하늘이 소원을 들어주셨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샤먼들은 아직도 이런 북을 사용한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① 연재를 시작하며

77세 노보살의 스승 이야기

오늘에서 육성을 들을 수 없는 선지식들의 이름은 불자들은 물론 고단한 시대의 대중 모두에게 커다란 그리움이 아닐 수 없다. 그 이름과 동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였고 기대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남긴 흔적만으로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오늘에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음이 때때로 그 어떤 설법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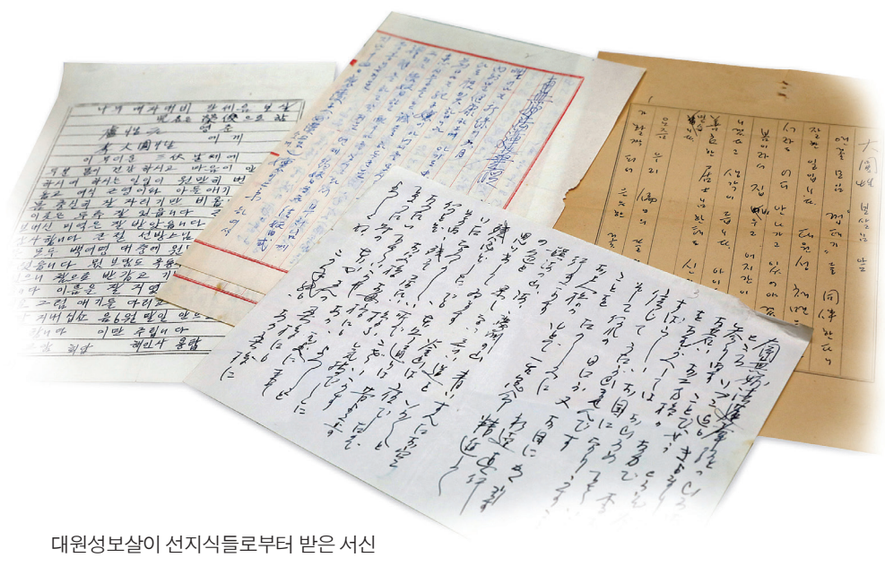
1977년 부산 연꽃모임을 만들어 쉼 없이 이끌고, 부산 지역의 불교발전에 앞장서온 이대원성 보살은 오랜 세월 불연속에서 많은 신행의 공덕을 쌓아왔다. 특히 많은 선지식들과의 인연은 그의 공덕 중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암 스님을 비롯해 일타 · 법정 · 운허 · 지관 스님 등과 대원성 보살이 주고받은 선식들의 서신을 격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올해 77세를 맞는 나 이대원성은 오랜 세월 불자로 살면서 많은 선지식들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다. 법문 속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또 모든 경계를 떠난 한 인간의 모습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그 중에는 선지식들과 주고받은 서신도 큰 가르침이 되기에 충분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러운 글자에서 전해오는 따뜻한 마음을 받아볼 때면 법회나 친견 자리에서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감화를 느끼곤 했다.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을 얻어 그동안 선지식들로부터 받은 서신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佛法)에 마음을 정하고 한 생을 한 생각으로 살아온 선지식들의 일언일구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대중을 마음속에서 그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설법으로 써내려간 그 서신들을 다시 꺼내어 본다. 세월을 머금은 서신들은 빛이 바래고 글자는 무뎌졌지만 그 빛바랜 종이 위에 단단히 새겨진 글자들은 여전히 선지식들의 마음과 영혼을 전한다.

어릴 적 우리 집엔 언제나 일반 손님보다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더 많아보였던 것 같다. 그때 철없던 그 시절엔 스님을 공경하기보다 너무도 예사로이 오신 손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불자로 살게 되면서부터 내가 너무도 많은 복을 타고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원성보살이 선지식들로부터 받은 서신

스무 살이 갓 넘었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어머니의 친구들과 통도사 백운암 기도에 따라가서 3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부터 하루에 두 번 아침저녁으로 부처님께 108배 기도를 하게 됐다. 그때 일주일에 두 번 불교청년회 법회 하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아버지의 봉건적인 가르침 때문에 가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느 날, 절을 하고 있을 때 당시 동국대학교 서경수 교수님의 법문을 듣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 몰래 청년회에 가입하게 됐다.

1967년 11월 18일 부산 대각사 청년회는 해인사로 2박 3일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따라나섰다. 그때 그곳에서 처음 만난 스님이 평소에 아버지께서 자비보살이라며 늘 자랑하시던 고암 스님이었다.

스님이 종정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리고 성철 일타 지관 법정 보성 수산 지월 스님께서 주지를 맡고 있던 시절로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많은 선지식들이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을 때였다.

생전 처음 참가했던 수련대회의 기억은 지금도 그 환희심이 생생하게 가슴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행복한 추억이다. 3일 째 되는 날 처음으로 5계를 받게 됐는데 우리 모두는 고암 스님께 계를 받고 싶어서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께서는 조용하고도 인자하신 모습으로 "나 말고 큰스님들이 많이 계시니 찾아가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허락하실 때까지 절을 하겠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벌떡 일어나 "절대로 절을 받지 않겠다"며 수산 · 법정 · 보성 등 몇몇 스님들을 증명으로 둘러서게 하고 우리 회원들은 계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대원성이란 법명을 받고 정식으로 불자가 됐다. 그리고 고암 스님을 나의 첫 스승으로 모시게 되어 가끔 편지로 안부도 주고받게 됐다.

1969년 그해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도 결혼식 날짜를 스님께서 정해주었다. 그리고 신혼여행도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해인사로 갔다. 그때 스님께서 손수 장을 보아 불전에 공양을 올리고 불공도 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이런 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너무나 그리운 큰스님 영정을 집에 모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예경하고 있다. 앞으로 소개하는 선지식들의 서신이 많은 대중에게 특별한 설법이 되기를 바란다.

2020 HAPPY NEW YEAR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서출판 한누리미디어
한국불교문인협회
한국불교문학

정치학/북한학 박사 김재엽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40,2층(구로동)
TEL 02-379-4514
FAX 02-379-4516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중심도량
바 라 밀 선 원

주 지 영경 태감
회 주 수담 인해

대웅전 법당 및 선원
대작불사 원만 성취



매월(음) 1일 오전 10시 초하루 법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가족법회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자비참기도
매달 초하루 3일 신중기도

불교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기본반(주/야) 오전 10시
매주 수요일 경전반(주/야) 오후 7시

경남 김해시 문성로 3번길 235 ☎ (055)327-2601

대한불교조계종
참선 수행 도량
가지산 석남사

무주상 공덕행으로
복된 새해되시길…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557
Tel 052)264-8900 Fax 052)264-8908
E-mail : seoknamsa@hanmail.net